

언어도단·불립문자의 세계 소설화

◇경전소설의 전형을 제시했던 <화엄경> 이후 4년 만에 다시 <소설 선>을 내놓아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고은씨.

투철한 수행·은밀한 법통계승등 초기선종사 다뤄 고은씨 '소설 禪' 1·2권 출간... 99년 전 6권 완간

"나는 문자의 세계가 결코 아닌 세계를 문자의 세계로 그려내는 일을 한 것이다."
<화엄경>을 소설로 구성한 <소설 화엄경>을 내놓아 경전 소설의 전형을 제시했던 고은(高銀)씨가 다시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진 <소설 선(禪)>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창작과 비평사).

작가 자신의 문학적 모태인 불교와 선의 세계를 다룬 전 6권 분량의 대하소설 중 1.2권이 먼저 발표된 것. 앞으로 매년 1권씩 추가해 99년에 전 6권을 마감하겠다는 것이 작가의 계획이다.

<소설 선>은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험난한 파도와 싸움을 견디고 대륙에

도착한 이후 양나라에서 무제와의 만남, 면벽수행 9년, 해가 예로의 법통승계, 의문의 죽음 등 선의 시조(始祖) 달마의 이야기에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을 거쳐 6조 혜능에게로 의발(衣鉢)이 전해지고 중국선이 남종과 북종으로 갈래 지워지는 과정까지가 1.2권의 내용이다.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력과 깨달음의 요체, 은밀하고도 감동적인 법통의 승계, 왕실과 세상의 어지러움을 초탈하는 수행력들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소설 선>은 앞으로 6조 이후의 중국과 한국의 선승들에게까지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한편의 선종사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



설 선)은 문학적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선의 세계와 소설이란 문학양식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키는데 성공을 보임으로 그간 '소설'의 전형이 없었던 안타까움을 불식시켰다는 평도 듣고 있다.

도단(言語道斷)으로 표현되는 선과 사건·인물이 중심되는 소설의 개별적 특징은 '소설'이란 문학양식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을 갖는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관련 평론가들은 "굳이 소설이라 명명한다면 그 내용 속에서 선의 본질적 요체가 언어의 속성마저 뛰어넘은 상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의 역사와 선사들의 수행 자체를 대하소설로 기획한 <소설 선>의 경우 작가의 체계적인 메시지와 소설적 구성의 탄탄함이 내뿜는 '계승'과도 같은 것이 작품에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립문자(不立文字)와 언어
임연태 기자



불심시심 <27>

가사 없는 옛 곡조

火裡紅蓮落故衣 (화리홍련락고의)	불길 속 붉은 연꽃 연꽃에 지니
木童收拾滿筐歸 (목동수습만광귀)	나무하는 아이 주워서 광주리 가득 돌아오다
古曲無音誰能和 (고곡무음수합화)	가사없는 옛 곡조 누가 화답하리란
溪邊石女笑微微 (계변석녀소미미)	시냇가 돌계집은 빙긋이 웃네

계우(繼雨)법사에게 준다 는 소요담의 시이다. 선가의 열승적 시이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 속에 옮겨 실었다(一株無影樹 移就火中栽)는 옛 선사들의 시를 연상케 하는 시이다. 법사에게 준 시라 하였으니 일상적 사유의 세계를 초탈한 선사와 선사의 응답이라 하겠다.

연꽃에 피는 것이 연꽃이라는 일상의 사실에서는 불과 꽃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음을 사시한다. 하지만 피어오르는 불꽃을 우리는 불꽃이라 하여 일상적 언어관습에서도 불을 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 꽃이 오히려 보기 드문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다.

연꽃으로 상징되는 이 전리의 세계 그것은 불꽃으로 불타는 열정적인 가슴이라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리의 꽃을 수습할 수 있는 나무꾼은 현실의 도취된 의식에 무뎠지 않은 사람이다. 작자는 이 시를 보내는 계우법사를 이런 나무꾼으로 유

추시키고 있다. 시내의 물은 예와 이제라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흐름이다. 이 흐름에 물러나는 물결은 바로 가사없이 변함없이 있는 곡조이다. 그러기에 인위적인 음률로는 화답할 수가 없다. 이 곡조를 누가 화답하겠는가. 설사 의성의 능수가 있어 곡조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벌써 옛곡조가 아닌 오늘날의 의사곡이다.

그러나 시냇가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돌처럼 있다. 그는 이 시간의 구애 없기에 가사없는 옛곡조의 음률을 이해한다. 그러기에 빙긋이 웃고 있다. 우리는 이 웃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 웃음이야말로 법철의 기쁨의 웃음이다. 석녀로 대칭된 불성의 본체를 찾고 거기에서 웃음짓는 기쁨을 맛

아야 한다. 소요담사는 계우법사에게 이러한 전리의 세계를 이해하여 시처무애의 초탈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인터뷰

피아노 독주회 여는 임동창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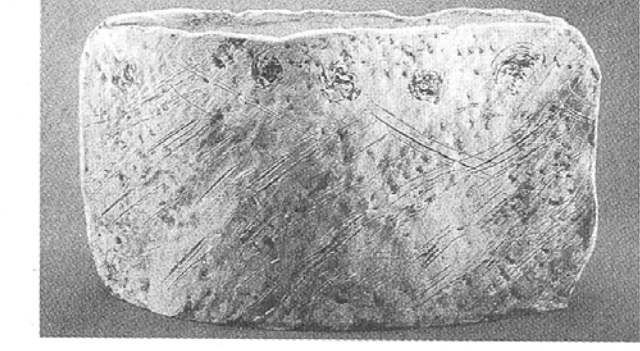
"양악도 국악도 아닌 임동창 '나만의 음악'을 '이뤄고 2'에 담았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심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는 29일 오후 7시 연강홀에서 첫 피아노 독주회를 통해 수행음악을 선보이는 임동창씨.
"이뤄고 2"는 중부지방 농악가락 중에 나오는 '칠재' 장단을 응용한 곡으로, 라(D)



"음악에 몰입하는 것이 나를 찾는 수행방편"

와 시(F) 두개의 건반만 사용한 수행음악이다.
고교 졸업 후 '나'를 찾기 위해 인천 용화사(주지 송담 스님)에서 출가수행을 하기도 했던 임씨는 언제나 '이뤄고'라는 화두를 품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담은 '이뤄고 2'를 연주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았을 때 비로소 음악은 완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역부족이예요. 이번 독주회에서 '이뤄고

2'라는 수행음악에도 '달아달아', '가을 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와 같은 전래풍요를 주제로 작곡한 세 곡을 함께 소개하는 임동창씨는 "음악과 나의 만남은 운명적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운명적 만남을 이렇게 풀어갈 계획이다. "천상의 연(緣)을 이어 찬송가·대중가요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 던진 찬불가를 창작해 낼 겁니다. 수행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 찬불가를."
(끝)



◇ 화랑 미술제에 내놓을 운광 조씨의 '월인천강'.

이월종·이점원씨등 불교화가 대거 참여 제10회 화랑 미술제... '백남준 특별전시' 등 행사 다채

올해로 일반제를 맞는 화랑 미술제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80여 화랑이 선정한 작가 1백43명이 참가하는 이번 미술제는 본 전시외에도 '백남준 특별전시' '10주년 기념 특별전, 화상(畫商)의 눈' '제2회 미술상 시상식' 등이 함께 열린다.

미술의 해를 기념해 특별 기획한 이번 화랑미술제에는 불교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다수 참여한다. 이점원교수(동국대)와 도부조 관화로 잘 알려진 임효씨가 조형갤러리 초대작가로,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연작을 하고 있는 강연교씨는 송원화랑 초대 작가로 참여한다. 또 샘터화랑의 이인씨 동승갤러리의 강대철씨 다도화랑의 운광조씨 등도 각각 작품을 내놓는다.
한편 10주년 기념 특별전은 지난 9월까지 참여한 전업작가를 초청해 열게 되는데 강연교, 이월종, 임효씨등 교계가 잘 알려진 작가들이 함께한다.

김복진 기념 조각전 컴퓨터로 작품 복원
최근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조각가 김복진(金復鎭)의 55주기 기념 조각전이 지난 18일 한남동 다도화랑에서 문을 열었다.
「백화」「소년」등 김복진의 미발굴 조각작품 도판을 바탕으로 컴퓨터그래픽으로 복원시킨 작품사진 20여점과 강대철·전뢰진등 40여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는 정관 김복진 기념사업회가 주최한다.

경복궁 전승공예관 이전 단청·개금등 공방 열여
경복궁내 전승공예관에 12종의 공방이 신설돼 단청, 목공예, 개금등 불교 공예실이 마련됐다.
향원정 뒷편으로 자리를 옮겨 22일 문을 연 전승공예관의 12공방은 칠, 붓제작등 생활과 밀접한 공예품들을 만들고 전시하는 곳. 이 가운데 3코너가 불교관련 공예실이다. 단청은 김의식씨(불화작가)가 목공예는 이진형씨(목공예기능보유)가 개금·도금은 김익홍씨(전통문화재 조각회장)가 각각 맡아 운영하게 된다.

김익홍씨등 작품 실려 전통문화재 조각회 작품집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김익홍)가 회원들의 조각 작품을 실은 작품집을 펴냈다.
비매품으로 제작 관심있는 불자들이나 불교미술 관련부서에 보급하게 될 이 작품집에는 김익홍, 허길용, 조병현씨등 35명의 작품 도록이 칼라로 실렸다. 또한 후반기에는 '불장의 기원과 변천' '불장미술품목' '불장품이입 절차' '불장이입의 사상, 신앙적 의미' 등이 실렸다.

6·25 주제작품 선보여 전수천씨 개인전

비무장지대 작업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수천씨의 개인전이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으로 갤러리 이음에서 열리고 있다. 6·25를 주제로한 설치작품과 회화 4점이 소개되고 있다.

사명대사 생가 복원 '성역화'

경남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소재 사명당 생가(지방기념물 제116호)가 복원·성역화된다.
밀양시는 '사명대사유적지복원추진위원회(회장 조희봉 밀양문화원장)와 연계,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7일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자 선정과 용이대 박물관의 학술연구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키로 했다.
밀양시는 또 총 부지 2천4백여평에 생가(정침 1동, 행랑채 1동, 곡간 1동, 대문 및 헐문 3개소)와 사당, 주차장 등 부속건물의 1차공사에 이어 예산 확보를 여건이 조성되면 일대를 성역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공사비 15억6천만원 가운데 9억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

경주경찰서 석탑 제자리로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정원에 조성용으로 놓여 있던 통일신라시대 3층석탑을 23일까지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옛 절터로 이전키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이전공사에 들어갔다.
경북도문화재지표 7호인 이 석탑은 높이 1백70cm 너비 90cm 크기로 하단 4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안경을 기원하는 탑으로 전해 오다가 지난 73년 경찰서 신축 당시 마을에서 옮겨진 것. 주민들은 "조경물로 사용돼 온 석탑이 뒤늦게나마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대구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전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충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第16次 韓日·日韓佛教文化交流大會

韓國과 日本의 佛敎文化交流과 發展을 圖謀하고 兩國의 佛敎指導者가 世界平和와 南北間의 平和統一을 祈願하고자 由緒깊은 古都 慶州佛國寺大講堂에서 第16次 佛敎文化交流大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敎界의 大德스님들과 在家의 善男善女 여러분의 聲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大會名: 第16次 韓日·日韓 佛敎文化交流大會

第1部-大會法要式(佛國寺大雄殿) 10月31日 午前 10時

第2部-學術講演會(現代호텔 大會講堂) 10月31日 午後 2時
(主題: 宗教의 葛藤과 平和努力)

其他-通度寺參拜 및 曹溪宗 宗正 玩下親見 11月1日 午前 10時

三光寺 오잔 및 梵魚寺참배 11月1日 午後 3時

◆日 時: 佛紀 2539年 10月30日~11月1日(2迫3日間)
檀紀 4328年

場所-佛國寺 및 現代호텔(보문단지내)

電話-서울(02)732-4885, 737-7872(종단협의회 사무국)
경주(0561)748-2233(현대호텔 보문단지)

※ 本會 任員諸位께서는 8月31日限 會費와 參加費를

一般會員님들 中 參加의 뜻이 있으신 분은 參加金 20萬원(宿食費 15萬원) 參加費 5萬원

을 本會 구과, 국민은행: 023-01-0365-724 예금주: 김진수로 入金하여 주시면 參加申請하신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主 催: 韓日佛敎文化交流協議會
後援: 社團法人 韓國佛敎宗團協議會
社團法人 全日本佛敎會
文化體育部, 財團法人 大韓佛敎 振興院

월간 대중불교 8월호

정법의 눈
석속소리 살아있음의 두려움 / 김종철
특집 해방 50년, 반단 50년
정신 없이 몰락의 업의 고부
통일불사 50년의 반성과 전망 / 정종철
얼어버린 것과 비로 세울 것
통일이 되어야 조국을 찾자 / 실선·김희근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삼통화쟁, 또 다른 후유증-석면 / 상민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업과 문화 전방 보성 불교 흥교/김희철·김성환
법당이야기 선운사(2) / 김원준
메시지를 찾아서
(6)가야산 법수사지 / 김성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7)속대와 당간 / 김중대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서강대학교 박광서 교수 / 김희근
수행으로 가는 길(4)/강경
경전, 이렇게 읽는다 / 이재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4)
바른 말 바라달(3) / 울타

교리신학/법(7)
악업을 방어하는 양심, 윤의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4) / 지장보살(4)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 일지

일상을 깨우는 신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상식을 뛰어넘는 야승, 격음 / 효림
포교당 일기 풍선결과 두 아이 / 원록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조경옥·박민숙·변희자

해의 불교 읽기
한생의 명, 티벳의 티벳 가는 길 / 김선정
변화하는 연변, 그곳 사람들 / 스갈
봉주우르, 길상 수제비(4) / 지옥

떠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구미불교포교원 / 이훈희
직장불교 EBS교동통신원 불자회

방송과 함께 말씀 익히기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권할수록이 좋습니다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